복지예산에 허리휘는 광주·전남 지자체

국비 확보 사업도 지방비 없어 반납

총예산 절반 차지…민생사업 등 엄두도 못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감안 국비 차등 지원을

광주·전남 일선 지자체들이 총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막대한 사회복지비에 신음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예산의 절반을 복지비로 편성하다 보니, 자체 사업이나 주민 불편과 관련된 각종 민원사업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비가 배정된 현안마저 지방비 1억원~2억원을 마련 못해 사업을 추진하고 못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공무원연금 예산도 수억원 이상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치구 사회복지비 부담 실태=광주시내 5개 구청의 경우 50% 안팎의 과도한 복지예산 비중으로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2006년에는 21%였으나 내년에는 17.2%로 추락한다. 광주시내 구청중 꼴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등의 복지 수요가 광주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다.

북구청의 내년도 복지예산은 1천225억원. 총예산 2천147억원의 무려 57.4%에 달한다. 이는 금년도 복지예산 비율 44.8% 보다 무려 13%나 오른 수치다.

광주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24.8%)가 가장 높은 서구도 형편은 비슷하다. 서구청은 내년도 총 예산 1천636억원 중 53%인 880억원을 복지 예산으로 배정했다. 남구와 광산구, 동구의 복지예산도 각각 50.6%, 48.8%, 42%를 복지예산으로 편성한 상태다.

전남지역 지자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높은 사회복지비 때문에 단체장들의 공약 사업들이 무더기로 연기되는 것은 기본이고, 민원이 가장 많은 도로포장이나 수해복구 사업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민생 사업 포기 속출=복지예산 비율이 전체 구청 예산의 50% 안팎에 이르면서 각 구청의 현안사업은 거의 마비상태다. 복지예산 자체가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없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이다. 또 국비가 편성된 사업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다.

광주 서구는 '서창천' 정비사업이 수해예방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7억원이 내려왔으나 지방비 3억5천만원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 지역현안인 솔라파크 조성사업도 지방비 1억4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국비 11억원을 놀리고 있다. 이 같은 복지예산 과다로 직원들의 연금 부담액을 8억원이나 부족하게 책정했다.

북구도 보안등과 가로등 유지 보수 등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생활민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광산구는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0억원이 배정됐으나 구비 6억원이 없어 손도 대지못하고 있다.

남구도 20억원이 소요되는 주택가 소방도로 사업과 하수관거사업을 포기했다. 동구청도 숙원사업인 동구문화센터 건립에 50억원이 필요하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2007년 말 준공계획을 포기했다.

◇"정부 정책 변화 시급"=이처럼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05년부터 복지분야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비율로 국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없는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는 복지예산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 지자체보다 배 이상 높아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지원과 관련 전남 등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시도에는 현행 국고보조율 80%를 90%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구보건소가 26일 승촌동 경로당에서 실시한 무료한방진료가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내 구청 예산의 절반이 복지사업에 투입되면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치지도자 손해 보더라도 국민뜻 받들어야"

김대중 前대통령 인터뷰

난항을 겪고 있는 정계개편과 관련, 민주세력 통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주목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을 아꼈다.

김 전 대통령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밝혀 정계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통 연설에서 대북송금을 수용한 이유로 '국민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노 대통령이 이제 와서 특검 수용의 배경을 언급한 점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으로 보인다.

또 노 대통령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변호했고, 국민의 정부를 변호하는 말만 해왔다"며 "나는 차별화를 안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김 전 대통령은 "나는 노 대통령하고 아무 감정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여권의 통합신당 논의 향배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내가 (관여)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정치 불관여'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특히 "나는 정치를 끝낸 사람"이라면서 "자기들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내가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은 "지도자들은 국민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바를 해야 한다"고 밝혀, 여권의 제 정파가 속절없는 지지율 하락에도 이해관계에 얽매여 이전 투구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같이 김 전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낀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아직 시기를 보고 있지 않으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찾은 박근혜 한나라당 前대표

26일 광주를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사회복지법인인 광주시 북구 동림동 애육원을 찾아 원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군복무기간 단축 설득력 없어 목표·노선 같다면 연대 가능"

26일 광주를 방문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군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핵 위기로 안보상황을 더 악화시켜 놓고 복무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상가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 복무기간 단축은 안보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안보상황인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군복무기간 2개월 단축, 노무현 대통령이 4개월 단축을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여건이 못된다는 것"이라며 "군복무 제도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해볼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군의 자부심을 훼손시키고 모독하며 우리 사회의 분열을 증폭시키는 언행은 문제가 있다"며 노 대통령의 최근 언행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이날 '공격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고 대응할 생각'이라는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남은 임기 동안 산적한 국가현안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 자꾸 정치게임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과 관련, "같은 사람, 같은 정책을 갖고 간판만 바꾼다고 누가 믿어주겠냐"며 "지금은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타 정치세력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목표가 같고 노선과 철학이 같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한 것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양동시장을 찾아 민심을 경청한 뒤 보육시설인 애육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